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총괄 요약표**

평가범주	지 표 명	비계량		계량		
		가중치	등급	가중치	난이도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국민평가			2		1.866
	(2) 경영공시 점검			3		2.000
	(3) 정부권장정책			5		4.769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 효율성			5		3.992
	3.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					
	㉞ 사업비집행률			1		0.994
	(2) 계량관리업무비			6		6.000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3	D ⁰			
	(2) 총인건비 인상률			3		3.000
(3) 노사관리	2	E ⁺				
주요사업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0	B ⁰			
	2.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6	양호	5.400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제고 성과			3	양호	2.700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확산					
	(1) 청소년활동 신뢰성 향상 성과			4	양호	2.160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성과			3	우수	3.000
	4.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지원 확대					
- 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참여 성과			4	우수	2.400	
전체 합계		15		45		

1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사회공헌

(1) 국민평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고객만족도결과×0.6+고객만족향상도×0.4+상대등급별점수	목표부여	100	85.932	93.300	2	1.866

나. 평가내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에 대한 평가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 평점은 고객만족도 지수와 조사결과외 전년대비 향상도를 6:4의 비율로 합산하고 상대 등급별 점수를 더하여 산출하였다.
- 고객만족도 지수와 전년대비 향상도를 반영한 평점은 93.300점으로 1.866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고객만족도 점수는 전년대비 1.041점 상승한 85.932점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청소년수련활동 및 교류협력이 2.2점 상승(2013년 84.6점 → 2014년 86.8점), 청소년지도자 연수 사업이 1.9점 상승(2013년 85.0점 → 2014년 86.9점),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이 2.0점 상승(2013년 89.9점 → 2014년 91.9점), 시설대관이 1.7점 상승(2013년 85.9점 → 2014년 87.6점)한 반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은 각각 6.2점, 5.4점 하락하여 각각 68.7점, 83.7점을 획득하였다.

라. 추세분석

- 고객만족도 지수는 2010년 84.4점, 2011년 85.0점, 2012년 85.2점, 2013년 84.9점, 2014년 85.9점으로 전년대비 상승하였다.

(2) 경영공시 점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공시의 정확성과 적시성	목표부여	100	66.667	66.667	3	2.000

나. 평가내용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는 자료의 정확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알리오) 일제점검 결과 3건의 불성실 공시와 이에 따른 벌점 15점을 받았고, 벌점 구간에 따른 득점기준에 따라 지표 가중치 3점 중 2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12년도 ‘요약 대차대조표(고유사업계정)’와 ‘요약 손익계산서(고유사업계정)’ 항목 중 K-GAAP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는 란에 K-IFRS 기준을 입력하여 각각 5점의 벌점을 받았다.
- ‘복리후생 8대 항목 중 단체협약 상 별도 합의사항’에서 단체협약 상 합의사항 관련내역의 허위공시로 5점의 벌점을 받았다.

(3) 정부권장정책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목표부여	100	95.380	95.380	5	4.769

나. 평가내용

- 법령상 의무권장사항 및 주요 국가정책사업 등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95.380%를 달성하여 4.769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지표명	가중치	평균	득점
1.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1.0	100	1.000
2. 상용형 시간제 근무제 실적	0.7	92.520	0.648
3. 장애인 의무고용	0.3	70	0.210
4.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3	100	0.3
5.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2.0	99.300	1.986
- 중소기업제품	0.6	100	0.6
- 기술개발제품	0.2	100	0.2
- 여성기업제품	0.2	100	0.2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0.2	100	0.2
- 중증장애인 생산품	0.4	100	0.4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생산품	0.2	100	0.2
- 녹색제품	0.2	93.209	0.186
6.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0.5	100	0.5
7.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	0.2	62.630	0.125
계	5.00		4.769

-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등은 세부지표에서 목표치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적과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은 각각 92.520%, 99.300%의 목표대비 달성률로 0.648점과 1.986점을 득점하였다.
- 장애인 의무고용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은 각각 70.000%와 62.630%의 달성률로 다소 미흡하였다.

라. 추세분석

-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은 2010년 가중치 2점 기준으로 1.761점, 2011년 가중치 5점 기준에 4.420점, 2012년은 4.779점, 2013년 4.404점, 2014년 4.769점으로 전년대비 다소 상승하였다.

2] 업무효율

(1) 사업수행효율성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순사업비/평균인원	목표부여 (편차)	최고 : 76,815,199 최저 : 58,943,705	72,313,332	79.840	5	3.992

나. 평가내용

-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효율성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순사업비를 평균인원으로 나눈 실적을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4년도 사업수행효율성은 2013년도 실적대비 2.054% 증가한 72,313,332를 기록하여 평점 79.840점으로 3.992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순사업비는 사업수익 확대 및 경비절감, 인력운영 효율화 등의 노력으로 사업수익(매출액)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21.319% 증가한 23.193백만원을 기록하였다.
- 평균인원은 2013년 7월 개원한 2개의 청소년체험센터(김제, 영덕)의 지속적 인력충원으로 전년대비 18.877% 증가한 320.731명을 기록하였다.

- 순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청소년체험센터의 개원에 따른 지속적인 인력충원으로 평균인원이 크게 확대되어 업무효율지표가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1인당 순사업비는 2010년 73백만원, 2011년 77백만원, 2012년 65백만원, 2013년 71백만원이며, 2014년은 전년대비 1.41% 상승한 72백만원을 기록하였다.

③ 재무예산관리 및 성과

(1)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사업비집행액/ 사업비예산현액	목표대실적	100	99.299	99.400	1	0.994

나. 평가내용

- 효과적인 사업비예산 집행관리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사업비집행액을 사업비 예산현액으로 나누어 목표대실적으로 평가하였다.
- 2014년도 재무예산성과는 사업비예산현액 17,981백만원에서 낙찰차액 및 자체절감액 483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17,498백만원 중 17,376백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집행률 99.299%로 최종적으로 0.994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13년 7월에 개원한 2개 청소년체험시설의 본격운영으로 사업비예산이 증대

되어 5개 수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자체절감 노력을 통하여 99.400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사업비집행률은 2011년 99.203%, 2012년 97.685%, 2013년 97.170%이며 2014년은 99.299%로 전년대비 2.129%p 상승하였다.

(2) 계량관리업무비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관리업무비/ 매출액	목표부여 (편차_하향)	최고 : 0.325 최저 : 0.387	0.303	100	6	6.000

나. 평가내용

- 적정수준의 관리업무비 관리노력을 유도하는 지표로서 관리업무비 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4년도 계량관리업무비는 실적 0.303으로 평점 100점을 기록하여 6.000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2014년도 관관비 및 사업비성 경비는 전사적 공통 절감목표 설정을 통해 노력하였으며 관리업무비 총액이 전년대비 2.566% 증가한 11,336백만원을 기록하였지만, 매출액이 전년대비 16.963% 증가한 37,401백만원을 기록하여 계량관리업무비 실적이 0.303으로 전년의 0.346에 비해 개선되었다.

라. 추세분석

- 관리업무비 총액은 2010년도 4,930백만원, 2011년도 5,082백만원, 2012년도

9,626백만원, 2013년도 11,052백만원, 2014년도 11,336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매출액은 2010년도 20,012백만원, 2011년도 20,673백만원, 2012년도 27,141백만원, 2013년도 31,976백만원, 2014년도 37,401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1) 보수 및 복리후생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급 차등 폭에서 보직자(2.07배)와 비보직자(1.48배)간 차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2배 미만인 점, 4개 등급으로 도입한 직무급이 해당 직위 수행과 관련한 직위급에 해당되므로 향후 직무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적정한 직무급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보직자의 성과급 차등폭은 2.1배로 정부 권고를 준수하고 있지만 비보직자의 성과급 차등폭은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배 미만이라는 지적사항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직무급도 2014년에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직무군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2015년부터는 직무평가를 통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개선이나 실행은 미개선 상태라고 평가된다.
- 기관이 전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간부직의 성과연봉 비중 22.8%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한 경우 20.7%), 성과연봉 차등폭 2.1배, 전체연봉 차등폭 26.3%,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점 등은 긍정적이며, 성과보상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을 40% 비율로 성과평가에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한 점도 바람직하다. 다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지만 비간부직의 경우 정부 권고안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직무가치와 직무수행 능력 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급 차이로 직무급을 설치한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관이 평가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및 재심의를 하고 연봉산출 후 다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를 둔 것은 연봉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성과연봉제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성과연봉제를 정착·확대하기 위하여 직원 의견을 반영한 평가제도 개선 등 성과주의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성과주의 가치 확산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과와 직무 중심 보상제도 실현에 관해 공감대를 확산한 점은 기관 및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으로 평가된다.
- 다만,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최고경영진회의)와 전담조직(노사선진화위원회)을 구성하고 국민 등 이용고객, 정부정책, 내부환경 등과 같은 여건 분석을 통하여 방만경영 개선활동의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였다고 하지만, 그러한 활동의 결과는 시행사례가 없는 순직시 별도 퇴직금 가산 지급이라는 1개 사항만 개선항목으로 선정하고 이를 조기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기관에게 아직도 미개선항목 사항이 다수 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방만경영 개선활동의 제도적, 내·외부 환경적 저해 요인을 파악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전략수립 과정 및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과 불만사항(만족도 조사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정도도 미흡하고,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자체 평가 결과를 활용한 환류 실적도 미미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기관은 업무상 재해로 퇴직 또는 순직자에게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2014. 9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고, 2014. 6에 이를 개선함으로써 정상화 이행계획으로 제출한 최종이행완료 시기보다 앞당겨 개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관은 2013년에 1인당 복리후생비로 300천원(정규직 기준)을 집행하였고 2014년에도 같은 금액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퇴직 또는 순직자에게 장애등급별

해당 금액 또는 퇴직금의 10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른 적절한 개선 실적이라고 평가된다.

- 다만, 긴박한 경영상 사유로 해고할 때 적어도 50일 이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발견되었을 경우 의사 진단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 휴직 사유로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를 인정하고 개별적 사정을 감안해 그 기간을 결정하는 내용, 학자금 지급 대상에 중학교를 명시한 내용, 업무 외 재해로 휴직했을 때 휴직 당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3월간 기본연봉의 80% 지급하는 내용, 일신상 사유로 휴직했을 때 휴직 당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관의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실제로도 명예퇴직을 제한하고 그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수 및 복리후생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D⁰”로 평가한다.

(2) 총인건비 인상률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득 점
정부예산편성지침	목표부여	1.7%	1.373%	100	3	3.000

나. 평가내용

- 정부예산편성지침의 인건비인상률 준수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실적 평가는 정부의 인상률 상한인 1.7% 준수 여부를 목표부여로 평가하였다.
- 2014년도 총인건비인상률은 1.373%로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상한인 1.7%를 초과하지 않아 평점 100점으로 3점 만점을 득점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범위 내 인건비 1.373% 인상과 정원범위 내의 현원관리, 불필요한 복리후생비 인상억제를 통하여 정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

라. 추세분석

- 총인건비인상률은 2011년 4.825%, 2012년 2.200%, 2013년 3.238% 그리고 2014년 1.373%로 매년 정부의 인상률 목표치 이하로 관리하여 정부지침을 준수하였다.

(3) 노사관리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전략 및 과제별로 추진실적과 성과를 관리할 때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달성도를 측정·평가한 후 그 결과를 차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점검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공식·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들의 효과성을 평가한 후 보다 효과적인 소통채널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소통채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개선실적은 노사선진화위원회의 일부 활동만 인정된다. 다만, 교육대상별로 필요역량의 수준을 향상시킬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마련한 것은 개선실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이 전국 6대 권역별 사업장 분산, 다양한 직종의 근무형태로 잠재적 갈등이 존재하는 기관의 노사관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사관계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8대 전략과제와 16개 실행과제를 이행한 노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노사관계 전략 개발 및 분석 과정에서 대외 전문가와의 협업 노력 및 성과가 부족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노사관계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

스텝 구축은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기관이 재무건전성 및 일자리 창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이 포함된 노사공동선언을 하는 등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을 시정하고 노사관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 1 hour for the future 등을 통해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고 재능기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노사공동으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한 점이 인정되지만,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노사관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영·인사권 침해 등을 포함하여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려는 노사공동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등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노사협의사항 이행률이 향상되고 노사소통채널 만족도가 향상된 점이 인정된다. 또한, 기관의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사관계 담당자 및 일반 관리자 등에 대한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조합원의 특성 및 업무, 전국에 산재된 정도 등과 같은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며, 노사관계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들의 중장기적인 활용체계 및 그 실적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경영악화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던 것을 그렇게 산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은 기관의 개선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자에 대해 그 활동기간 중에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는 것, 교섭대상으로 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것, 징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징계권에 제한을 가한 것, 부당징계 등에 대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명령 판결문 접수 즉시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 파견·용역노동자로 대체할 때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것, 교대근무 등 불규칙 노동으로 노동형태를 변경할 경우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하는 것,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 횡수와 시간 등에 제한이 없는 것, 노동조합의

재정자립 방안에 대해 기관이 적극 노력한다는 것, 기관의 조직 변경시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 등은 모두 지난번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고 경영·인사권 사항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내용, 교섭대상으로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을 인정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관이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이 임시휴일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내용, 년 6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 스스로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사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E”로 평가한다.

2 주요사업

1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 기관은 2013년 연수수련 사업, 청소년성취포상 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사업,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에는 청소년 역량개발 특화 사업, 청소년활동 안전강화 사업, 청소년활동 참여지원 사업,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 201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비계량 성과 평가를 성과관리위원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성과 평가결과를 2014년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은 주요사업 선정을 위해 설립목적과 법적기능,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경영전략과 주요사업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별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기관은 2013년에 비하여 2014년에 청소년 수련 시설 및 프로그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이 인정된다. 2014 국제금장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주요사업별 체계적 환류활동을 위해 PDCA 관점의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 하였으며, 각 주요사업별 평가위원을 내외부로 균형 있게 구성하였다. 기관은 2013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내용을 내부적으로는 직원 워크숍 및 회의, 지식경영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전파 공유하며, 또한 대내외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전파 공유함으로써 평가와 환류활동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 기관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계하여 계량지표 구성체계가 비교적 잘 구성되어 있으며 계량지표의 목표수준도 다소 도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계량지표 5개 모두가 신규로 개발하는 등 주요 사업별 지표 개선 노력은 인정된다.

(1)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기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대표적인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 전문인력의 체계적 연수교육, 국가자격제도인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관은 청소년 수련활동 전문인력의 체계적 연수교육, 국가자격제도인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관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5개 국립수련시설을 직영하고 있다. 기관은 서류심사를 통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해주고,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관은 청소년 해외봉사 및 국가간 약정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맡아서 국제교류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
- 기관은 주요사업 선정을 위해 설립목적과 법적기능을 분석하여 8대 핵심업무를 정의하였으며,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경영전략과 주요사업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경영환경 분석을 토대로 기관의 가치체계를 보완, 재정립하여 조직의 조기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던 그 간의 전략방향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新경영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인력, 사업비, 정책 우선순위, 고객비중(파급성)을 내부 임원 및 간부진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8대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기관의 4대 주요사업을 청소년 역량개발 특화사업, 청소년활동 안전강화 사업, 청소년활동 참여지원 사업,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주요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PDCA 체계에 따라 전사 경영계획과 주요사업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이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 기관은 중기 경영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요사업별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실행과제에 대한 지표유형별 계량 비계량 Pool을 균형 있게 도출하고, SMART 점검 및 AHP분석을 통해 Outcome 중심의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당해연도 주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중장기 사업계획을 위해 연도별 중점사항과 조직 환경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였다. 기관의 4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내외부의 성과평가위원을 균형 있게 구성하였으며, 특히 외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가 실제 조직의 성과평가와 개인의 평가에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외부평가의 실효성을 증대하였다. 기관의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평가된다.

(2)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 기관은 청소년 역량개발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5개 국립수련시설을 직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 기관은 국립수련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대상의 청소년에게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시범적용하고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모델화하여 보급함으로써 민간수련시설의 질적 수준과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체험분야·지역·대상별 청소년 역량활동모델 46개 종을 개발하여 424개 민간기관에 보급하여 민간수련시설의 발전 견인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 기관은 청소년활동 안전강화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를 통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각 수련시설은 원칙적으로 매회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14일 전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법규로 의무화 되어 있다. 또한 기관은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에 787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자이다. 기관은 전기, 가스, 시설, 소방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전국의 수련시설의 시설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조치를 취한다. 시설안전점검은 2년에 1번씩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활동 안전강화를 위해 수련활동 사전신고제 및 수련활동 인증제의 법적관리기준을 강화, 청소년 활동시설 안전점검 체제구축 및 안전문화 공유·확산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전국의 각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기관은 청소년활동 참여지원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해외봉사 및 국가간 약정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기관이 맡아서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교류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www.youth.go.kr 을 통해서 국민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볼 시스템(dovol.youth.go.kr)에 봉사활동 운영기관, 시설단체들이 등록을 하면,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 두볼 시스템이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www.neis.go.kr)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봉사활동 기록이 나이스 시스템에도 자동으로 등재가 된다. 특히 기관은 시군구 청소년수련관과 협력하여 전국 200여개 소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 2014 국제금장총회(IGE: International Gold Event 2014 Korea) 성공적 개최 등이 긍정적인 노력으로 인정된다.
- 기관은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온라인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수교육 이수관리제’ 추진, 청소년 지도 분야별·수준별 전문연수 표준과정 pool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 청소년지도자의 지속적인 전문역량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내·외부 전문강사풀 구성을 통한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 및 전문성 강화,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및 활용성 강화 등을 통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과정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3) 주요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적절한 수준인가?

- 기관은 청소년활동 안전강화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 활동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기관의 시설안전 점검,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공표, 안전문화 확산, 안전교육 노력이 돋보

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 및 정보 공유 채널을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청소년활동 안전센터 조직 신설(예산 58억, 인력 26명 확보)’의 역할이 기대된다.

- 기관의 청소년 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의 참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당사업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여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청소년 자유학기제(진로탐색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활동의 중요성에 비하여 전문적인 청소년역량활동 개발·운영·지원이 양과 품질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 판단된다.

(4) 주요사업별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기관은 주요사업별 체계적 환류 활동을 위해 PDCA 관점의 자체 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 하였으며, 각 주요사업별 평가위원을 내외부로 균형 있게 구성 하였다. 특히,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한 성과관리의 합리성 제고와 평가제도의 내재화를 위해 전 직원 대상 2회 이상의 성과관리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여 전사적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내재화 하였다. 또한 전년도 각 주요사업별 평가결과 및 이슈사항을 당해 연도 주요사업 계획 수립 및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주요사업 평가 결과를 최대한 반영·환류하여 자체평가시스템 운영의 효과성 증대 노력이 인정된다.
- 기관은 경영평가단 및 국회 등의 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적절하게 개선 조치하였으며, 특히 <경영평가단>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노력 필요」의 지적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의 평가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전략과 연계한 전사 성과관리지표 POOL을 개발 보완, 성과평가제도 보완, 성과관리 평가 교육을

강화하여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노력을 기하였으며, 「고객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필요」의 지적에 따라 청소년활동 분야의 프로그램 공모와 청소년 수요조사를 통해 고객니즈를 요인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에 예산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대한 실효성을 증대하였다. <국회> 「진로탐색 기회제공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방안 강구」에 따라 전담부서를 신설 직제 보완하여 업무 협약이행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내실화 하여 총 38개 소와의 업무협약과 구체적인 협약이행을 추진하였으며, 「인증심사 시 서면 점검 축소」 지적에 따라 현장 점검을 대폭 증가시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 이와 같은 평가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한 환류내용을 내부적으로는 직원 워크숍 및 회의, 전직원 참여 지식경영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전파 공유하며, 또한 나아가 청소년활동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대내외 전문가 포럼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전파 공유함으로써 평가와 환류활동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5) 주요사업별 범주의 계량지표의 구성 및 목표 수준은 적정한가?

- 기관은 주요 계량지표 선정에 먼저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주요 사업 성과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주요 사업별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체계에 다른 유형별 계량지표 Pool(Input-Process-Output-Outcome)을 구성하고 구성된 각 지표의 SMART 점검을 하여 최종 Outcome 중심의 3개 사업(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확산,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 참여 지원확대)으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하였으며 그 가중치는 인력 및 예산비중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였다. 따라서 기관의 주요사업별 계량지표의 구성체계는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사업 계량지표는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지원사업에 2개 지표(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제고 성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확산사업에 2개 지표(청소년활동 신뢰성 향상 성과,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성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 참여 지원확대사업에 1개 지표(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참여 성과) 등 총 5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지표는 실적치가 3개년 이상 누적된 시점부터 목표부여(편차) 방식을 적용하되 2014년의 경우 직전 3개년평균 실적치의 120%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나머지 4개 성과지표는 모두 과거 4~5개년 목표부여(편차)를 적용하여 도출한 최고 목표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기관의 계량 성과지표 목표 수준은 지표 난이도가 3개 양호지표(가중치 13점)우수지표 2개(가중치 7점) 등으로 다소 도전적으로 설정하였다고 판단된다.

- 기관은 5개의 계량지표를 최종성과(outcome) 중심으로 신규로 개발하는 등 주요 사업별 계량지표 개선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당해 연도 인증신청 프로그램 숫자 분에 인증위원회 심사통과 프로그램 숫자 계량지표는 인증위원회 심사를 엄격하게 할수록 실적치가 낮아지는 점에서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 인증 신청을 할 때에 애초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심사 통과율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실적치를 높이기 위하여 인증위원회 심사를 쉽게 통과시켜 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포상인원 증가율의 경우 전년도 성취포상활동 참여인원 분에 (당해연도 포상인원 - 전년도 포상인원) 계량지표는 성취포상활동에 참여하여 포상을 받는 인원에 대하여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이 많이 작용하므로 바람직한 지표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관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계량지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집행 실적, 성과 및 환류 활동, 그리고 주요사업범주 전체 지표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요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B⁰”로 평가한다.

2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건강 성장 지원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난이도 계수	득점
(당해연도 검증 사업수-전년도 검증사업수) /전년도 검증사업수	목표부여	최고: 0.223 최저: 0.149	0.279	100	6	0.9	5.40 0

나. 평가내용

- 청소년활동(학교단체 시범수련활동, 소외청소년지원, 특성화캠프)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효과 유의성을 측정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지표로서 전년도 청소년활동 효과 유의성 검사 사업 수 대비 당해 연도 청소년활동 효과 유의성이 검증된 사업 수를 목표부여로 평가하였고, 2014년도 청소년수련활동 효과 향상 실적은 0.279로 최고치인 0.223을 초과하여 평점 100점으로, 최종 득점을 5.400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활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 대상 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대상별, 특성별 특화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활동 역량개발 모델 연구 및 지도역량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하여 2014년에는 전년대비 27.9%(51개) 증가한 234개의 사업에서 효과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라. 추세분석

- 효과 유의성 검증 사업은 2011년도부터 측정하였으며, 검증된 사업 수는 2011년 132개, 2012년 175개, 2013년 183개, 2014년 234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효과 유의성 검증사업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2년 32.6%, 2013년 4.6%, 2014년 27.9%로 2013년에는 매우 저조했으나 2014년도부터는 회복하는 추세에 있다.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제고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난이도 계수	득점
(당해연도 전문연수 수료인원 - 전년도 전문연수 수료인원) / 전년도 전문연수 수료인원	목표부여	최고: 0.410 최저: -0.264	0.432	100	3	0.9	2.700

나. 평가내용

- 기관의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확대를 통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활동 할 전문지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재육성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년 대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인원의 증가 실적을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4년도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인원은 2,376명으로 전년 대비 717명이 증가하여 증가율 0.432를 달성하였다. 증가율은 최고목표 0.410을 상회하여 평점 100점으로, 최종 득점을 2.700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각 국립수련시설(중앙, 평창, 고흥, 김제, 영덕)별로 특성화된 연수과정의 확대운영과 연수운영체계를 전담부서(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연수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청소년수련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전국 청소년지도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참여가 용이하였고, 또한 수련활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연수과정의 지속적 개발·운영을 통해 2,376명의 전문연수 수료인원 실적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수료 실적은 2009년 1,328명에서 2010년 1,508명으로 증가하였다가 2011년 1,217명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2012년 1,546명, 2013년 1,659명, 2014년 2,376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확산

(1) 청소년활동 신뢰성 향상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인증 프로그램 확대 성과 평점×0.5 + 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 성과 평점×0.5

$$\text{인증 프로그램 확대 성과} = \frac{\text{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text{청소년활동 기관}}$$

$$\text{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 성과} = \frac{\text{인증위원회 심사통과 프로그램}}{\text{당해연도 인증신청 프로그램}}$$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4)	난이도 계수	최종 득점
인증프로그램 확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0.402 최저: 0.351	0.511	100	2	0.9	2.160
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0.791 최저: 0.616	0.536	20	2		

나. 평가내용

-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 및 보유기관을 늘려 청소년활동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표로서 ‘인증 프로그램 확대성과’와 ‘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증대성과’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여 각 0.5의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4점에 반영하였다.
- 2014년도 인증 프로그램 보유기관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787곳 중 402개 기

관으로 최고목표 0.402를 초과하는 0.511의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100점, 2014년도 인증위원회 심사통과 실적은 2014년도 인증신청 프로그램 2,895개 중 1,553개 프로그램이 심사통과 되어 최저목표 0.616을 하회하는 0.536을 달성하여 평점 20점을 기록하여, 최종 득점을 2.160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의 확대를 위해 부처, 유관기관(17개 시도센터 등)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2013년 태안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 급증한 인증 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인력증원과 예산확대 및 심사 횟수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하여 2013년 대비 13.5 증가한 51.1%의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 비율 실적을 달성하였다.
- 인증프로그램 심사통과율은 2013년 태안 사설해병대 캠프 사고 및 대규모, 고위험 활동에 대한 의무 인증제 도입으로 인증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2014년 인증신청 프로그램의 수가 2013년 1,291개 대비 1,553개 124.2% 급증하였으나 안전한 수련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현장심사 확대 등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인증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2013년 심사통과율 60.7%를 하회하는 53.6%의 저조한 심사통과율을 달성하였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은 2010년 208개, 2011년 223개, 2012년 239개, 2013년 294개, 2014년 402개 기관이고, 인증프로그램 보유기관 비율은 2010년 28.8%, 2011년 30.2%, 2012년 31.7%로 소폭상승의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37.6%, 2014년 51.1%로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심사통과 비율은 2009년 73.3%, 2010년 78.2%, 2011년 73.6%, 2012년 76.8%으로 완만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60.7%, 2014년 53.6%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성과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난이도 계수	득점
안전사고 가중지수 /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	목표부여 (편차/하향)	최고: 0.062 최저: 0.165	0.058	100	3	1	3.000

나. 평가내용

- 청소년수련활동 참여 청소년의 안전사고 감소를 통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립수련시설로서 민간수련시설을 선도하고자 하는 지표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 대비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가중지수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였다.
- 2014년도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인원은 2013년 대비 15,548명 16.9% 감소한 데 비하여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2013년 대비 81.5점 64.7% 감소하여 최고목표 0.062보다 낮은 0.058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평점 100점을 기록하여 득점을 3.000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시설 및 활동장비 보완, '수련활동 종합안전 매뉴얼'을 제작·보급, 전 직원 및 현장 활동지도 담당자 대상 응급상황 대처교육과 안전관리자 교육 등 안전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기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2013년도 7월 2개 국립수련원(센터)의 개원으로 청소년활동 참여인원은 2010년 84,188명, 2011년 86,680명, 2012년 88,511명, 2013년 92,01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예약 및 계약 학교단체들의

대거 취소 사태 등으로 참여 인원이 76,468명으로 감소하였다.

- 안전사고 가중지수는 2010년 101점, 2011년 114점, 2012년 63.5점, 2013년 126점으로 등락이 있었으나, 2014년에는 44.5점으로 2013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4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지원 확대

(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참여 지원 확대

가. 평가개요

지표산식							
자원봉사 활동참여 성과 평점×0.5 + 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 성과 평점×0.5							
$\text{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성과} = \frac{\text{당해연도 봉사인원} - \text{전년도 봉사인원}}{\text{전년도 봉사인원}}$							
$\text{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성과} = \frac{\text{당해연도 포상인원} - \text{전년도 포상인원}}{\text{전년도 포상인원}}$							
세부지표	평가방법	목표치	실적치	평 점	가중치 (4)	난이도 계수	득점
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0.062 최저: 0.058	0.095	100	2	1	2.400
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성과	목표부여 (편차)	최고: 0.441 최저: 0.277	-0.082	20	2		

※ 단, 가중치는 해당 지표의 전체 가중치에서 각 세부지표에 할당된 가중치를 의미함

나. 평가내용

- 자기주도형 청소년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표로서, ‘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성과’와 ‘성취포상 활동참여 증대성과’를 목표부여(편차)로 평가하여 각 0.5의 비율로 지표의 가중치 4점에 반영하였다.
- 2014년도 ‘자원봉사 활동참여 증대’는 참여인원 3,183,810명으로 최고목표 0.062를 상회하는 0.095의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100점, 2014년도 ‘성취포상 활동

참여 증대는 참여인원 1,048명으로 최저목표 0.277을 하회하는 - 0.082의 실적을 달성하여 평점 20점을 기록하여 최종 득점을 2.400점으로 평가하였다.

다. 항목별 원인

- 청소년의 봉사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자원봉사 참여기록을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편리성을 강화하였고, 저연령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으로 봉사활동 참여인원 수는 3,183,810명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하였다.
- 성취포상 활동참여는 2014년도 세월호 사고 이후 청소년 야외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2014년 포상인원 1,048명으로 2013년 대비 8.2% 감소하였다.

라. 추세분석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등록된 참여인원 수는 2009년 2,273,068명, 2010년 2,444,208명, 2011년 2,649,290명, 2012년 2,760,844명, 2013년 2,907,459명, 2014년 3,183,810명으로 2009년 도입 이후 10%이내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청소년성취포상 활동참여 증가율은 2010년 14.8%, 2011년 45.1%, 2012년 37.0%, 2013년 25.8%이었으나,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청소년활동이 급감하여 -8.2%로 대폭 감소하였다.